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손으로 보는 세상



엘리베이터에는 버튼마다 점자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버튼 위에는 점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 점자는 숫자가 시작됨을 알리는 수표 와

1을 나타내는 가 합쳐져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자음	ㄱ ㅇ ㅇ	ㄴ ● ㅇ	ㄷ ● ㅇ ㅇ	ㄹ ㅇ ㅇ ㅇ	ㅁ ● ㅇ ㅇ	ㅂ ● ㅇ ㅇ	ㅅ ㅇ ㅇ ㅇ	ㅇ ● ㅇ	ㅈ ● ㅇ ㅇ	ㅊ ● ㅇ ㅇ	ㅋ ● ㅇ ㅇ	ㅌ ● ㅇ ㅇ	ㅍ ● ㅇ ㅇ	ㅎ ● ㅇ ㅇ	원소리 ㅇ ㅇ ●
받침	ㄱ ● ㅇ ㅇ	ㄴ ● ㅇ ㅇ	ㄷ ● ㅇ ㅇ	ㄹ ● ㅇ ㅇ	ㅁ ● ㅇ ●	ㅂ ● ㅇ ㅇ	ㅅ ● ㅇ ●	ㅇ ● ● ●	ㅈ ● ㅇ ●	ㅊ ● ㅇ ●	ㅋ ● ㅇ ●	ㅌ ● ㅇ ●	ㅍ ● ㅇ ●	ㅎ ● ㅇ ●	
모음	ㅏ ● ㅇ	ㅑ ● ㅇ ㅇ	ㅓ ● ㅇ ㅇ	ㅕ ● ㅇ ㅇ	ㅗ ● ㅇ ●	ㅛ ● ㅇ ●	ㅜ ● ㅇ ●	ㅠ ● ㅇ ●	ㅡ ● ● ●	ㅣ ● ㅇ ●					
	ㅐ ● ㅇ	ㅒ ○ ㅇ ● ●	ㅖ ● ● ●	ㅙ ● ㅇ ●	ㅚ ● ㅇ ●	ㅜ ● ㅇ	ㅠ ● ○ ● ●	ㅝ ● ● ●	ㅞ ● ● ●	ㅟ ● ○ ● ●	ㅠ ● ● ●	ㅡ ● ○ ● ●	ㅢ ● ○ ● ●	ㅣ ● ● ●	
약자	가 ● ㅇ ●	나 ● ㅇ ㅇ	다 ● ㅇ ㅇ	마 ● ㅇ ㅇ	바 ● ㅇ ㅇ	사 ● ㅇ ●	자 ● ㅇ ●	카 ● ㅇ ●	타 ● ㅇ ㅇ	파 ● ㅇ ㅇ	하 ● ㅇ ○	억 ● ○ ●	언 ● ● ●	얼 ● ● ●	연 ● ○ ●
	열 ● ○ ●	영 ● ● ●	옥 ● ● ●	온 ● ○ ●	웅 ● ● ●	운 ● ○ ●	울 ● ● ●	은 ● ○ ●	을 ● ○ ●	인 ● ● ●	것 ○ ● ● ●		받침 ● ○ ● ●		
약어	그래서 ● ○ ● ●		그러나 ● ● ○ ○		그러면 ● ○ ○ ○		그러므로 ● ○ ○ ●		그런데 ● ○ ○ ●		그리고 ● ○ ○ ●		그리하여 ● ○ ○ ●		
숫자	수표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0 ● ○ ○				
문장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입표(...) ○ ○ ○ ○ ○ ○										
영어	a ● ○ ○	b ● ○ ○	c ● ○ ○	d ● ○ ○	e ● ○ ○	f ● ○ ○	g ● ○ ○	h ● ○ ○	i ● ○ ○	j ● ○ ○	k ● ○ ○	l ● ○ ○	m ● ○ ○	n ● ○ ○	
	o ● ○ ○	p ● ○ ○	q ● ○ ○	r ● ○ ○	s ● ○ ○	t ● ○ ○	u ● ○ ○	v ● ○ ○	w ● ○ ○	x ● ○ ○	y ● ○ ○	z ● ○ ○	영어시작 ○ ○ ○	끝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ㅋ, ㅌ, ㅍ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C O N T E N T S



점자로 말해요 | 1층 02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어디든 갈 수 있어요 04

우리연합회에서는 | 2014년도 전국심화재활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시각장애인을 위해 재능기부 나서요" 06

뉴스앨범 | 보행지도사 양성 교육 실시 &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신입기사 대상 시각장애체험 및 교육 실시 08

함께 사는 이야기 | 도선생은 도보살 /

박종민(시각장애 1급, 서울시 동대문구) 09

2014 07
vol. 168



인터뷰 |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시각장애인 박범용 씨를 만났습니다! 10

흰 지팡이 발자취 | 안내견은 언제부터 시각장애인과 함께였을까? 12

포커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에 의한 전시회 14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7호 통권 168호

발행일 2014년 7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 소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우암에이스타워 403호 전 화 02-950-0107 팩 스 02-934-8069 이메일 kbuhongbo@hanmail.net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제작 디코라이징(02-542-5064)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난 달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귀가하려던 1급 시각장애인 서 모씨가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 서 모씨가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자 버스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며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최소 2년간 고도의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탑승 및 공공장소 출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처럼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은 대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비해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이번 안내견 승차거부 사건처럼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에 대한 차별행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또한 반대로 안내견이 귀엽다고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는 행위 역시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전철을 탑승했는데, 주위 사람이 준 뜨거운 빵을 먹고 놀랜 안내견이 그 뒤로 전철 탑승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안내견에 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2014년도 전국심화재활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7월 17일, 18일 양일간 2014 전국심화재활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인 관련 복지시책, 복지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실무관련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매년 전국심화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심화재활교육은 대전에서 실시되었는데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7개 시·도지부에서 약 300여 명의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복지 종사자가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심화재활교육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산형성 등 경제적 정보에 관한 교육, 업무에서 필요한 조직 활성화를 돕는 리더십 교육, 시각장애인이 알고 있어야 할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등이 이뤄졌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시각장애인위해 재능기부 나서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시각장애인용 도서제작을 위해 재능 기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지속적인 도서입력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도서입력봉사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참여하게 된 도서입력봉사는 무엇일까요? 도서입력봉사는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일반 도서를 컴퓨터 워드작업을 거쳐 파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도서를 파일로 바꾸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봉사에 참여하기로 한 공사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행지도사 양성 교육 실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보행지도사 양성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은 2월에 실시된 1차 교육에 이어 2차 교육인데요,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길을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자격으로, 1, 2차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자립 보행을 돕는 보행지도사양성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매년 2월, 7월에 각각 2주에 걸쳐 교육 실시 및 자격검정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신입기사 대상 시각장애체험 및 교육 실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이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의 신입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 체험 및 교육이 실시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보행법, 시각장애인 보행체험, 시각장애인 식사체험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도선생은 도보살

박종민(시각장애 1급, 서울시 동대문구)



나는 우리 집에 오는 활동보조인을 도선생 또는 도보살 이라고 부른다. 도선생이란 도움이 선생을 줄인 말이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불교신자인데 관세음보살같아서 도보살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러자 자기는 도선생, 도보살이기도 하지만 낮에 와서 밥, 빨래, 청소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동행하고 저녁 때 돌아가니 우렁각시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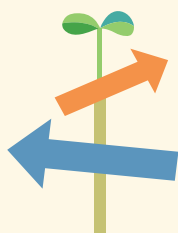
내가 도보살을 만난 것은 2012년 5월 10일이었다. 도선생은 나보다 나이가 한참 위라서 큰 누나 서열이다. 나도 사람들에게 깔끔하다는 말을 듣는데 도선생은 청소나 음식을 할 때 나보다 더 깨끗하고 깔끔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선생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활동보조인을 만났느냐고 하면서 나를 무척 부러워한다. 그러면 나는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나? 조상 3대가 덕을 쌓아야 그렇게 되지!”라며 농담을 한다.

정말 우리 도선생은 도보살이다. 자기한테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한다.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사람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비오는 날 지나가다 우산없이 가는 할머니나 어린이가 있으면 비닐우산을 하나 사 주든지 집이 가까울 때면 자기 우산을 줘버린다. 떡, 과자,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나 경비 아저씨들에게 곧잘 나누어 준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도보살이 지나가면 손부터 쳐다본다고도 하였다. 물론 나한테도 너무나 잘한다. 내가 도보살에게 나에게 해주듯 남편이나 시부모한테 하면 효부, 현처상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하니 도보살도 웃으며 자기도 같은 생각이란다.

도선생은 옛날에 별명이 엄격한 ‘사감선생’이었다고 한다. 예의와 행실이 바르고 철두철미한 성격 탓일 것이다. 어떨 때는 나에게 “살찌니까 그만 먹어요.”라면서 음식을 더 주지 않고 먹던 것도 빼앗아 버릴 때도 있다. 그럼 나는 “도선생은 순악질 여사예요.”라고 하면 도선생은 “왜 내가 순악질 여사예요?”라고 묻는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왜 순악질여사냐? 그것은 순할 순, 즐거울 악, 부드러울 질, 즉 순하고 양순하며 온순하고, 즐겁고, 쾌활하고 명랑하며 밝고, 부드럽다. 착하고 선한 것이다.”라고 했더니 도선생이 소리내어 웃는다.

나는 훌륭한 도움이상, 착한 도움이상, 모범 도움이상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도선생인 도보살을 추천하고 싶다. 하루 속히 이런 제도가 생겨나 활동보조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시각장애인 박범용 씨를 만났습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지원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 준비에 대한 관심은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청북도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한 시각장애 3급 박범용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박범용 씨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공직진출대비반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Q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대학교 재학 중에는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취업의 어려움을 실감할 뿐 나오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취업이 쉽지 않았고 적성에 맞으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권유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공직대비반의 지원으로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공이 사회복지분야이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선택해서 조금이나마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A 대학교 졸업 후 시험공부를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중 5개월은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대부분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교재는 확대기로



보면서 공부를 했고 수업관련 컴퓨터 PDF 파일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어단어나 숙어, 행
정법, 국사 등의 과목들은 수업내용이 MP3 파일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어서 수시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반
복적으로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Q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공직진출대비반 프로그램이 시험 준비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되셨나요?

A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최고의 강사진을 보유한 KG패스원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았어요. 특히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직접 학원에 가서 실제 강의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
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와 학원 강의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였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밖에도
한 달에 한 번 실시되는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
른 수험생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평소 면접에 자신이 없었는데, 필기 합
격 후 지원되는 면접강의가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 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A 물론 다른 수험생들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통 공무원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금전적인 어려움도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어 과목이었는데요, 다른 과목은 일정 부분 공
부를 하면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영어 점수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서야 느낀 거지만
영어 점수는 기본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단시간 내에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은 꾸준히 매일 정해진 분량을 공부하는 것이 고득점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으신지? 포부 또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아직까지 큰 포부는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우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
로는 본 업무에 충실하고 공부와 운동 등도 꾸준히 해서 항상 발전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안내견은 언제부터 시각장애인과 함께였을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보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과거의 벽화를 보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폼페이의 벽화에는 시각장애인이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 개에 맨 줄을 잡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세기 중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그림에는 개가 시각장애노인을 안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후 유럽의 많은 화가들이 시각장애인들을 그릴 때 개를 함께 그린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시각장애인이 개의 도움을 받아 보행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안내견을 양성하게 되었을까요? 세계 최초의 안내견 학교는 1917년 독일에 지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쟁 중에 실명한 상이군인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 보행할 수 있도록 훈련이 이뤄진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안내견이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돕기 시작한 당시 주로 셰퍼드가 안내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셰퍼드는 독일의 국견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전이 일어날 무렵 독일 전역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전쟁에서 셰퍼드가 독일군의 군용견으로 훈련을 받아 크게 활약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에는 안내견의 90% 이상이 리트리버입니다. 리트리버는 기질, 품성, 사람과의 친화력 등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리트리버는 라브라도 리트리버와 골든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미국인 중 최초로 안내견을 분양받은 모리스와 ▶
안내견 분양을 도운 유스티스 여사

다시 안내견의 초창기로 돌아가 볼까요? 독일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안내견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세계로 확산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도로시 유스티스 여사입니다. 유스티스 여사는 스위스에서 개를 훈련시키다가 독일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 후 안내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기사에 실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에도 안내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리게 되었으며 이 신문 기사를 읽은 미국의 시각장애대학생 모리스는 유스티스 여사에게 안내견 분양을 요청합니다. 이에 유스티스 여사는 모리스를 스위스로 초청하여 안내견 버디를 분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모리스와 안내견 버디가 미국으로 돌아가 성공적으로 보행을 하면서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도 안내견 학교가 설립됩니다. 그 후 안내견 훈련사의 자격제도를 마련하였고 안내견 학교도 표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점차 안내견 학교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내견을 분양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안내견을 사용한 사람은 대구대학교의 임안수 교수님입니다. 임안수 교수님은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스할리우드시에 있는 국제 안내견 학교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안내견 사라와 함께 귀국하였습니다. 안내견 사라는 독일 셰퍼드로 원래 이름은 독일 역사에 나오는 공주의 이름을 따서 '차라'였으나 이후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약 14년 동안 안내견으로 활동하다가 1985년에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후 몇몇 시각장애인이 외국의 안내견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안내견을 분양받았습니다.

1993년에 이르러 한국에도 삼성 안내견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도 안내견을 훈련하고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보급,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임안수, 2010년),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 참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에 의한 전시회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 전시회와 시각장애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 중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 전시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눈 갤러리에서는 ‘손가락이 책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촉각도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이로 제작한 촉각도서에 이어 올해는 천으로 만든 촉각도서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촉각 즉, 손으로 읽는 책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것입니다. 촉각도서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동화의 장면을 펠트 인형으로 표현하고 내용은 점자로 나타내는 동화책, 모형의 모양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알 수 있는 책 등 다양한 내용의 촉각도서가 전시 중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 전시회는 8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우리들의 눈 갤러리는 서울시 종로구 화동 23-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시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인데요, 바로 시각장애아동의 작품 전시인 ‘우리도 피카소가 될 수 있어요’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알아갑니다. 시각장애아동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시각장애아동들이 자신의 신체를 그린 그림이 전시됩니다. 몸의 윤곽을 따서 전신 윤곽을 신체의 좋아하는 부분들을 따로 그려보는 등 자신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본 전시의 작품들은 우리들의 눈에서 시각장애학생들과 실시한 ‘장님 코끼리 만지기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시각장애아동의 미술작품 전시회는 오는 8월 16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89에 위치한 HEARTIST 건물 지하 1층에서 계속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 천으로 인형, 도형 등을 만들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읽을 수 있음.



▲ 시각장애아동이 그린 자신의 모습, '우리도 피카소가 될 수 있어요' 전시회
(왼쪽부터 충추성모학교 허유리, 박웅진, 최승리 학생 작품)

2014년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 2/4분기 정산내역

후원금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계	109,722,706	계	109,722,706
지정후원금	-	CMS메카	99,000
비지정후원금	8,812,562	CMS사용료	99,000
접수입	22,550	CMS이체수수료지출	19,265
CMS이체수수료수입	19,265	소식지 제작사업비	600,000
		소식지 발송 우편료	289,170
이월금	100,868,329	시각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	9,712,850
		이월금	98,903,421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상 초·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내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 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 및 접수 02-935-9696 박승만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 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우리은행 1006-601-227253

· 외환은행 170-22-00710-6